

군-e러닝 이수학점 최저, 이수구분도 ‘답답’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현재 군 복무 중인 정경대학 2020 학번 정 씨는 6학기를 마친 뒤 입대했다. 졸업까지 남은 학점은 30점. 예정 전역일을 고려했을 때 바로 복학도 불가능해 복학까지 1년이 넘게 남았다. 주변 사람들의 취업 소식도 간간히 들리지만 급한 본인의 처지 때문인지 축하한다는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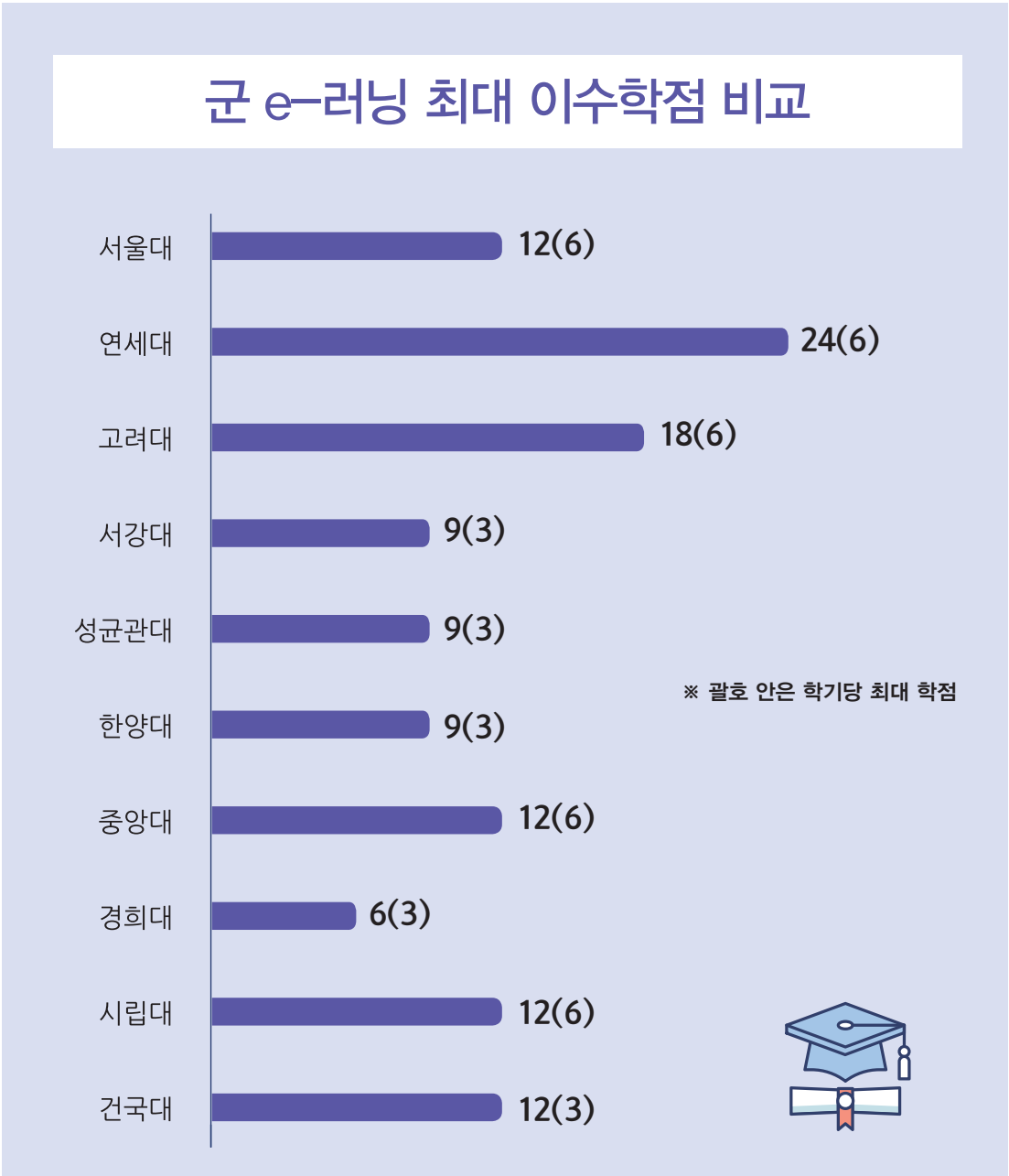
조급했던 정 씨는 고된 군 생활 속에서도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제도’를 통해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정 씨가 군 복무 중 수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단 6학점이었다. 학교마다 적용되는 학칙이 다르기에 발생한 일이다. “국방부 포털 사이트에도 1년에 12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학교는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다”는 정 씨의 목소리에서 아쉬움과 답답함이 느껴졌다.

국방부 “수강 학점 제한 없다”
우리학교 최대 6학점 수강 가능
연대 24학점, 고대 18학점까지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제도’는 군 휴학생이 군 e-러닝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60여 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학교 역시 지난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e-러닝으로 한 학기 6학점, 1년에 12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최대 수강 학점에는 제한이 없다. 그런데 복무 중 우리학교 최대 수강 학점은 단 6학점에 불과하다.

각 대학은 국방부의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e-러닝 관계자는 “수강 학점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방부 기준에서 학교가 자유롭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군 복무 중 최대 수강 학점에 제한



서울권 주요대학과 우리학교의 군 e-러닝 최대 이수학점 비교

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인정 학점은 서울권 주요 대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학사지원팀은 “최초 군 e-러닝 제도 시행 시 법령 기준에 맞게 이수학점을 정했으나, 이후 관련 법령 기준이 변경됐고 현재는 이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각 대학의 군 복무 중 최대 인정 학점은 연세대 24학점(이하 학기당 6학점), 고려대 18학점(6학점), 서

울대 12학점(6학점), 중앙대 12학점(6학점), 시립대 12학점(6학점), 건국대 12학점(3학점), 서강대 9학점(3학점), 성균관대 9학점(3학점), 한양대 9학점(6학점)이다. 우리학교와 같은 인정 학점을 둔 대학은 한국외대 뿐이었다.

다만 학사지원팀은 이수학점 상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사지원팀은 “최근 총학생회와 회의를 통해 학생 요구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이수학점 상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이수구분도 선택 사항”
본교 이수구분, 일반선택만 가능
타학교는 전공으로도 인정

군 e-러닝을 통해 취득한 학점이 전공, 교양이 아닌 자유선택 학점으로만 인정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군 e-러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김민성(화학공학과 2020) 씨는 “이

수학점이 낮은 것도 아쉽지만 전공이나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쉽다”며 “전공 및 교양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전역 이후 학업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e-러닝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교양이나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국방부 e-러닝 관계자는 “이수구분 역시 대학의 고유 권한”이라며 “얼마든지 전공이나 교양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이수학점을 부여하는 연세대는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전공과 교양 학점 모두, 고려대는 교양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이수 구분을 넓게 채택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하지만 우리학교에서 군 e-러닝을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이수구분을 넓히는 일은 쉽지 않다. 군 e-러닝을 전공과 교양학점으로 인정하는 학교는 자체 강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자체 강의가 아닌, 컨소시엄 대학(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수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학사지원팀은 “교양, 전공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대학에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라며 “이수구분을 넓히려면 시스템부터 시작해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여러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적은 이수학점에 답답함을 토로했던 정 씨는 “이수학점과 이수구분이 확대된다면 제대 후에도 학점과 관련해 부담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는 현역 병사, 상근예비역, 단기부사관, 전·의경,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해당된다. 해당 제도로 학점 취득을 원하는 군 휴학생은 우리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이 아닌 나라사랑포털(<https://www.narasarang.or.kr/>)을 통해 직접 수강신청과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 1면에서 이어짐

교육부 “비수도권 의대 중점으로”
30명 증원 가능성 낮아
서울권 의대, 정원배정 힘들 수도

우리학교가 제출한 30명 정도의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당초 정부 증원 목표인 2000명을 훌쩍 넘는 수치인 3401명이 신청

된 것은 물론, 의대 정원 배정 1순위는 비수도권 소재 소규모 의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40개 대학 부총장·의대 학장과의 간담회에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할 것”이라

고 말했다. 따라서 수도권 대형 의대에 속하는 우리학교가 원하는 인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교육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강원대, 건양대, 동아대, 가톨릭관동대 등 정원 50명 미만의 비수도권 의대 12곳이 최우선 증원 대상이며 순천향대, 영남대, 경상대 등 50명~100명의 비수도권 대학 9곳이 차순위 일 전망이다.

이어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국립대 등 정원 100명 이상의 비수도권 의대 역시 지역 의료 차원에서 배정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4일 경북대를 방문해 “경북대 총장께서 의대 정원을 230% 증원해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내겠다며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수도권으로 고개를 돌려도 정원 50명 이내의 아주대, 성균관대, 인하대, 가천대는 물론 중앙대(86명)·이화여대(76명)·가톨릭대(93명) 등 역시 우리보다 배정 우선순위에 있다. 정원 100명이 넘는 서울대(135명), 경희대, 고려대(106명), 연세대(110명), 한양대(110명) 등 서울 대형 의대 5곳은 정원 배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